

하루를 시작하며



정 한 식  
전 초등학교교장·수필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가 비상이다. 국내에서도 정부를 중심으로 헌신적인 의료진과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 방역 사례 등 외신 보도를 통해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은 매우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일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코로나 대처로 생존이 걸린 전 세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에 의한 경제 활성화로 시급히 극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으로

감염병 예방 및 일상화 방역수칙과 환기 시기

서 책임 의식을 갖고 의견을 함께하여 참고가 되고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다.

우선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했을 경우 일상화 가능한 방역수칙 설정이 중요시된다. 이에 대해 일반 방역수칙들을 분석·검토하여 실내 환기하기를 설정할 수 있다. 실내 환기하기에서 다음 두 가지 기능적 특성이 검토되기 때문이다. 즉, 하나는 밀폐된 실내의 부패하고 오염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일

반 방역수칙들에 대한 인프라적 요소 기능이다. 이는 다른 일반 수칙들은 각각 실내 환기가 먼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말이다. 만일 실내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장시간 경과하게 되면 실내 공기가 부패하고 오염되어 실시자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이에 밀폐된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실외 공기 상태로 맑게 변화 시켜 감염병 예방 및 일상화 가능한 방역수칙은 실내 환기하기이며 이외의 다른 수칙들은 그 밀폐된 실내의 오염된 공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정도 일시적 실시는 가능하지만, 생활 속에서 일상화하기는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달을 수 있다.

현재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인공지능(AI)과 언택트(Untact·비대면) 흐름이 가속화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자영업,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 등에서는 일상화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미개발된 상태이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화이자가 9일(현지 시각)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안전성, 효능

등 검증이 미중결 상태이지만 고무적이고 환영하며 성공적인 미래가 기대된다.

또 완벽한 개발은 인간의 한계상 쉽지 않은 일이므로 보다 나은(좋은·훌륭한)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지속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환기의 중요성 인식 및 환기 방법, 특히 환기의 적절한 시기가 매우 중요시됨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즉, 입실(승차·승선 등 탑승) 전에 밀폐된 해당 실내를 충분히 환기한 후 입실해야 하며 또 입실한 후에도 매시간(학교의 경우는 단위 수업 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해야 맑은 공기가 유지되어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기의 적절한 시기가 제대로 실천이 안 돼 1차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면 2차 이상의 n차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다른 방역수칙 준수 병행은 필수다.

사설

차고지증명 취지 좋으나 부담도 적잖다

차고지증명제의 취지는 나무랄데 없습니다.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닙니까. 차고지증명제는 말 그대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차량의 보유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교통 체증이나 주차난을 반길 주민이 어디 있었습니까. 문제는 차고지 증명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과하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제주시에서 따르면 이달 초 차고지 확보 명령에 응하지 않은 170차 차고지 확보 명령 우편물이 발송되었습니다. 10월 첫 부과된 93차 과태료 부과에 앞서 발송한 2차 차고지 확보 명령 우편물이 반송돼 공사승달 공고가 이뤄진 것만 38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좋은 취지에

도 개선할 사항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1년동안 차고지증명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150만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임차료 부담도 적잖습니다. 월 5만5000~7만5000원의 임차료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택이 있어도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다는 점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주택 중에는 마당이나 울타리를 헐어도 차고지를 조성할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차고지를 마련하려고 해도 여건상 안되는 주택이 많다는 얘깁니다. 특히 내적이 없어서 이사를 자주 다니는 젊은 세대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임차료 경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좋은 취지에

끊임없는 데이트 폭력, 엄중 대응해야

제주지역도 연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사이에 발생하는 특성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지고, 신고도 소극적이어서 피해자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범죄입니다. 자칫하면 심각한 상해나 살인까지도 이를 수 있어 초기 강력한 대응이 매우 필요합니다.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홍보, 피해자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지체 말고 나서야 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집계결과 최근 3년간(2017~2019년) 데이트 폭력으로 326명이 검거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00명, 2018년 128명, 2019년 98명으로 매년 100명 안팎입니다. 올해 상반기만도 40명이 검거됐습니다. 범죄 유형도 폭행 상해에다 감금 협박 살인미수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소극적 신고자세를 감안하

면 검거인원보다 발생건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날이 갈수록 늘거나 흉포화되고 있는데 반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무관심이 불러온 결과인 대우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제 지역사회가 데이트폭력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 못지않게 사전 데이트 폭력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 사후 피해자 지원 등에 자치단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연인이란 명목으로 상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어떠한 유형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가 데이트 폭력 대응에 적극 나서 여성이 안전한 제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뉴스-in

원 지사, “아직은 대권 도전 선언 안했다”

대권 선언은 언론의 해석

○…대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 한적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

17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이 원 지사의 대권행보에 따른 도정공백을 우려하자 “아직 대권 도전을 선언하지 않았다”며 “언론 보도는 언론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

이어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행보를 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식 선언하고,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겠다”고 즉답을 회피. 이때윤지사가

“고유정 무죄 판결, 부실수사”

○…충북지방경찰청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 제기 때 당시 수사했던 경찰서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주목.

감찰은 고씨의 재혼한 남편이자 승진 의붓아들의 친부가 경찰청에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

친부의 법률대리인은 “살해혐의가 무죄 판결이 난 책임은 경찰에 있어 부실수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 문미숙지사가

자유무역협정 추가 피해 없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이 이뤄졌으나 도내 농수산물 피해는 없을 것으로 분석.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지난 15일 한국 등 15개국 정상들이 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했으나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은 제외됐다고 설명.

제주본부 관계자는 “현재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열대과일 관계는 철 폐했지만 15개국과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추가적인 농업 분야 피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점언. 고대모지사가

열린마당

새로운 이동수단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정 우 혁  
제주시 도동주민센터

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동킥보드 이용 전에 점검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유행함에 개인소유가 아닌 장치는 점검을 소홀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 전 전조등 등의 등화 장치와 경음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운행 습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운행 도중 핸드폰 사용,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등은 절대 해선 안되며, 횡단보도에선 장치에서 내려 끌고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인도에 방치된 킥보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킥보드를 사용 후 보호자의 이동에 방해가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공유 업체는 킥보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로 시민들은 많은 편의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된 법률을 잘 숙지해, 안전수칙 및 법률을 잘 지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양철웅(미술평가협회 대표) 아버지 제주양공 창원(前 한림읍장·향년 81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16일 19시 30분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1월 18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11월 19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5빈소  
▶장 지: 양지공원 → 한울누리공원

부 인 김 정 열  
아 들 양 철 웅  
도 영  
호 성  
며느리 이 명 하  
문 정 희  
손 너 양 유 리

※ 연락처 : 양철웅 010-2641-0677

**부 고**

고순남 어머니 파평윤씨 월선(향년 96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17일 06시 54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1월 19일(목요일)  
▶발인일시: 2020년 11월 20일(금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2층)  
▶장 지: 양지공원 → 조수2리 선영

아 들 고 순 남  
며느리 김 명 월  
순 권  
순 창  
딸 고 순 자  
사 위 강 세 흥  
순 희  
이 상 진  
손 자 고 민 성  
외손자 이용희  
손 너 고 영 민  
이용준

※ 연락처 :  
고순남 010-3697-1540, 고순권 010-3642-6159  
고순창 010-9898-2190, 김명월 010-9838-1540  
허영화 010-3062-2190, 고순자 010-9735-7163  
고순희 010-3003-7833, 강세흥 010-2698-7163  
이상진 010-7251-7833, 고민성 010-4176-2442  
고영민 010-7179-1540, 이용희 010-7251-0777  
이용준 010-7251-9327

**부 고**

오만식(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어머니 청주한씨 율순(향년 96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16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1월 19일(목요일)  
▶발인일시: 2020년 11월 20일(금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성삼삼 수산리 선영

아 들 오 만 식  
며느리 현 영 자  
오 영 옥  
사 위 정 태 원  
영 매  
고 장 립  
손 자 오 태 영  
손 너 오 새 봄  
태 현  
태 관

※ 연락처 : 오만식 010-2693-0021  
현영자 010-3949-2043  
정태원 010-5699-2944  
고장립 010-6798-1959  
강동립 010-5661-3780  
오영매 010-5306-1959  
한진옥 010-6798-0852  
오영심 010-5749-378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광산김씨 임길(향년 9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18일

아 들 김 석 현  
며느리 박 영 순  
(실 바 아)  
딸 김 승 자  
사 위 김 영 규  
김 희 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김씨 춘(향년 9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18일

아 들 강 영 호  
며느리 문 정 옥  
손 자 강 경 필  
경 덕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들이란법률 제2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구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분묘번호	분묘소재지	지목	기수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 조원읍 특목리 55-2	임야	1가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사항 : 제사결행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제주시 516로 2810-31 (양지공원 봉안당) ☎ 064710-6628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4. 개장방법  
\* 신고자가 있는 경우 : 연구자와 협의 후 처리  
\* 신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회장 후 공설봉안당에서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지 : 대구시 동구 송라로10길 34 송규호 ☎ 010-2502-3096  
\* 문의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 064729-2562  
7. 신고시 구비서류 (본묘의 연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가첩, 기타 증명서류 등 첨부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시립구간 내에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위공고인 : 대구시 동구 송라로10길 34 송규호 ☎ 010-2502-3096